

[논단]

고통(suffering)과 통증(pain)*

— 단순한 통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의 완전한 선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가? —



최 규 하

[가톨릭대학교 철학 교수·신부]

들어가는 말

1. 고통과 통증의 구별
2. 통증에 대한 고찰: 단순한 감각으로서의 통증과 불쾌감을 동반한 통증
3. 단순한 통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의 완전한 선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가?
4. 요약적 결론

들어가는 말

고통의 문제는 전능하며 완전히 선한 신의 존재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전능하고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런 신이 창조한 세계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혹은, 전능한 신의 선성과 고통의 존재는 양립가능한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유신론적 답변을 제시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논의 대상의 개념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다. 과연 갖가지 형태의 고통이나 그와 유사한 현상들이 모두 신의 선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고통(suffering)과 단순

* 이 논문은 본 논자의 2016년 박사 학위 논문인 “Contriving a Defense for the Sake of the Individual Sufferer: Refuting Plantinga’s Felix Culpa Argument” 중 일부를 번역, 수정하고 보충한 것이며, 2018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1)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가령 J. L. Mackie, “Evil and Omnipotence”, *Mind* 64 (1955), 200~212를 참조하라.

한 통증(pain)을 구별하여 각각의 개념을 명료화함으로써, 실제로 그 주체의 전인적 온전성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지닌 고통과 달리 단순한 통증은 오히려 그 주체의 온전성을 보존함에 있어 긍정적인 기여를 하곤 함을 밝히고, 따라서 신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통증을 허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 신의 완전한 선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통과 통증의 개념적 정리를 통해, 추후의 연구에서 전능하고 완전히 선한 신의 존재와 관련하여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1. 고통과 통증의 구별

고통과 단순한 통증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다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둘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진술하기는 쉽지 않다. 학자들에 따라 이들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이들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포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증은 주로 육체적인 데 반해 고통은 주로 심리적 혹은 정신적이다. 둘째, 주체의 온전성(integrity)의 측면에서, 통증은 주로 육체적인 온전성과 관련된 반면, 고통은 전인적인 온전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 두 가지 구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통증은 주로 물리적인 데 반해 고통은 주로 심리적 혹은 정신적이라는 구별과 관련하여, 존 히크는 “통증은 [...] 구체적인 신체적 감각이다. 반면에 고통은 인간의 삶 그 자체만큼이나 복잡할 수도 있는 정신적 상태이다”²⁾라고 설명한다. 또한 제이슨 에벨에 따르면, “통증은 주로 육체적인 감각”인 데 반해, “이 감각에 따라오는 (어떤) 것이 바로 고통을 구성하는 것”이기에, “통증의 인식은 고통을 구성할 수도 있는 육체적 요인들과 자각하는 정신적 요소

2) John Hick, *Evil and the God of Love*, Palgrave Macmillan, 2010(rev. ed.), p.318.

들을 포함하”지만, 고통은 “인식을 넘어서는 심리학적 상태”이다.³⁾ 덧붙여, 존 오졸린스는 “통상적으로, 통증은 신경 말단의 자극에서 발생하는 대체적으로 불쾌한 육체적 감각으로 이해된다”⁴⁾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와 반대로 고통은 복잡한 정신적 상태라고 주장한다. 곧,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통증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심원한 괴로움”⁵⁾인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두 번째 형태의 구별은 주체의 온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통은 한 인격체의 전체적인 온전성에 관련된 반면, 통증은 육체적인 온전성에 한정됨을 주장한다. 카를로 벨리에니에 따르면 통증은 “우리의 육체적 온전성에 대한 공격에서 발생하는 충격”인 반면, 고통은 “우리의 인격체로서의 온전성에 대한 공격에서 발생하는 충격”이다.⁶⁾ 벤자민 핑크 또한 통증은 “한 사람의 육체적인 온전성에 대한 위협이나 훼손으로 촉발되는” 데 반해, 고통은 “한 사람의 전반적인 온전성에 대한 훼손이나 위협”으로 촉발됨을 주장한다.⁷⁾

3) Jason T. Eberl, “Religious and Secular Perspectives on the Value of Suffering”, *The National Catholic Bioethics Quarterly* 12(2012), 252~253.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증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는 육체적인 통증이 고통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피터 추의 고통과 통증에 대한 예를 보면, 가령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녀는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겠지만, 이 통증이 꼭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로미오는 짝사랑으로 인해 고통받지만, 그가 고통받을 때 반드시 어떤 육체적 통증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Peter Shiu-Hwa Tsu, “Elimination of Pain Versus Elimination of Suffering: Why CDS is Ethically Preferable to PAS”,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11(2011), 45). 육체적 통증을 결한 고통과 관련하여, 데이빗 보잉크는 “고통은 감각의 결여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감각의 결여는 환경에 의해 감각들의 자극이 결여되는 것에 관련된다—보거나 냄새 맡거나 듣거나 만지도록 ‘자극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David E. Boeyink, “Pain and Suffering”, *Journal of Religious Ethics* 2(1974), 88). 이 경우 고통은 통증의 인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다.

4) John Ozolins, “Suffering: Valuable or Just Useless Pain?”, *Sophia* 42(2003), 59.

5) *Ibid.*, p.63.

6) Carlo Bellieni, “Pain Definitions Revised: Newborns Not Only Feel Pain, They Also Suffer”, *Ethics and Medicine* 21(2005), 8. 따라서 벨리에니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로든 충만함을 향한 욕구가 좌절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Ibid., p.7).

7) S. Benjamin Fink, “Independence and Connections of Pain and Suffering”, *Journal of*

이 두 가지 형태의 구별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통과 통증을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증은 주로 육체적 온전성에 대한 위협이나 훼손에 의해 촉발되는 육체적 경험인 반면, 고통은 주로 전인적인 차원의 온전성에 대한 위협이나 훼손에 의해 촉발되는 정신적 혹은 심리적 경험이다. 물론 여기에서 육체적인 온전성은 이론의 여지없이 전인적인 온전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에, 통증의 많은 경우들이 고통을 야기하거나 혹은 그 자체가 고통임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모든 통증이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고통이 통증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2. 통증에 대한 고찰:

단순한 감각으로서의 통증과 불쾌감을 동반한 통증

앞서 살펴보았듯, 통증을 육체적 온전성에 대한 위협이나 훼손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고통과 구별한다면, 통증이 필연적으로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육체는 한 인격체 전체를 구성하는 다수의 요소들 중 하나로서 전체의 부분이기에,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기 보다는 전체와의 관계 안에서 전체의 온전성에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따라 그 최종적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증은 육체의 온전성에 대한 손상이나 위협에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볼 때는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어떤 경우에 이러한 육체적 손상이 전체 유기체의 온전성을 보존함에 있어서는 이로운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반대로, 통증이 한 인격체의 전체적인 온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이는 고통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통증의 존재가 그 자체만으로 — 곧, 고통으로 이

어지지 않을 때 — 신의 완전한 선성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통증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일지라도 한 유기체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수단적인 의미에서 좋거나 유익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러한 통증을 허용하는 것은 신의 선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제 통증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어떤 이들은 통증을 단순한 감각으로 간주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통증 감각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경험으로 여기기도 한다.⁸⁾ 전자에 속하는 이들 중 핑크는 통증은 단순한 감각으로서 불쾌함이나 싫음과 같은 감정들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핑크는 통각마비(pain asymbolia)라는 병리학적 증상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 연구⁹⁾를 근거로, 핑크는 통각마비 환자들은 통증을 인지하지는 않지만 그 통증으로부터 기인하는 어떤 불쾌함이나 싫음을 느끼지는 못함을 관찰하며, 따라서 통각마비는 통증이 그 자체로는 단순한 감각일 뿐이고 불쾌함과 같은 감정적 측면을 포함하지는 않음을 증명한다고 결론짓는다.¹⁰⁾ 따라서 핑크에 따르면, “통증과 불쾌함의 감정적 정서는 색깔에 있어 빛깔과 채도만큼이나 서로 다르며, (빛깔과 채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간과된다.”¹¹⁾

통증이 감정적 측면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감각임을 증명하는

8) 희에게서 또한 이와 연관된 구별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목적에서 ‘통증’이라는 단어는 관례상 육체적인 자극과 이와 연관된 감정적인 반응 모두를 포괄하기 위해 사용되기에, 하디(Dr. J. D. Hardy)가 제시한 용어가 아마도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가장 적을 것이다. 그는 ‘통증 감각’(pain sensation)(곧, 육체적인 통증 자체)과 ‘통증 경험’을 구별하는데, 후자는 육체적 통증에 의해 통상적으로 산출되는 괴로움이나 고통의 정서적인 상태를 포함한다”[Hick(2010), p.293].

9) 특히 Nikola Grahek, *Feeling Pain and Being in Pain*, MIT Press, 2007(rev. ed.), pp.41~50과 Marcelo Berthier, Sergio Starkstein, Ramon Leiguarda, “Asymbolia for Pain: A Sensory-Limbic Disconnection Syndrome”, *Annals of Neurology* 24(2004), 41~49.

10) Fink(2011), pp.47.53~54.

11) *Ibid.*, p.64.

핑크의 또 다른 예는 매운 맛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다. “매운 맛은 우리의 통각수용기(nociceptor)에 받아들여진 캡사이신($C_{18}H_{27}NO_3$)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통각수용기는 유해한 자극들에 특화된 수용기이며” 따라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이들의 경우에 매운 맛은 심지어 “즐거운 통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²⁾ 따라서 통증과 불쾌함의 이러한 분리는, 통증이 그 자체로는 그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감각임을 증명하는 듯하다.

통증을 단순한 감각으로 이해하는 또 다른 예는, 데이빗 베인의 용어에 따르면 “욕구 관점”(the desire view)이라고 불리는 이론이다.¹³⁾ 데이빗 암스트롱이나 데릭 파뮷 등을 이 관점을 표방하는 이들로 제시하면서, 베인은 이들 욕구 관점론자들은 통증을 육체적 훼손이나 불편함을 표상하는 “중립적인 감각적 경험”으로 여기는데,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경험의 주체가 그들이 그치기를 원할 때에만” 불쾌한 것이 된다고 설명한다.¹⁴⁾

하지만 이러한 욕구 관점론자들이나 앞서 제시된 핑크의 견해와는 달리, 통증을 통각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경험으로 여기는 견해도 있다. ‘통증 연구를 위한 국제 협

12) *Ibid.*, p.54. 또한 Harry T. Lawless, Hildegard Heymann, *Sensory Evaluation of Food: Principles and Practices*, Springer, 2010(rev. ed.), p.41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라: “화학적으로 유도되는 다양한 감각들은 바깥 피부는 물론이고 구강과 비강에서 감지될 수 있다. 이 화학적으로 유도된 감각들은 맛과 냄새의 전통적인 분류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주어진 감각(chemesthetic sensation)이라 불린다. [...] 이러한 감각들 중 많은 것들이 입이나 코, 눈의 삼차 신경 말단의 자극을 통해 감지된다. 매운 고추나 다른 향신료에서 기인하는 발열성의 자극적 감각들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서, chemesthetic sensation에 해당하는 정확한 번역어를 찾을 수 없어, 그 어원을 살펴 감정적으로 ‘화학적으로 주어진 감각’이라고 번역하였다.

13) David Bain, “What Makes Pains Unpleasant?”, *Philosophical Studies* 166(2013), 73. 이 관점에 따르면, “어떤 주체가 불쾌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그 주체가 (i) 어떤 중립적인 [...] 감각적 경험 (통증)을 겪고 있다는 것과, (ii) 그 통증(혹은 그 통증이 지닌 현상적 특성)이 즉각적으로 멈추는 것에 대해 경험적으로 방향 지어진 비수단적 욕구를 지니는 것으로 구성된다.”

14) *Ibid.*, pp.73~74.

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IASP)]는 1991년에 통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통증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신체 조직의 손상에 근거하고 있거나 그러한 손상의 측면에서 묘사된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다.¹⁵⁾ 감정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통증의 이러한 정의는 다음에 묘사되는 통증의 감지 과정에 잘 부합한다: “통증의 원인은 통각수용기라고 불리는 수용기의 자극이다. [...] 자극이 먼저 척수에, 그리고 그 다음 뇌의 중양부에 전달되면, 통증의 감지가 발생한다. [...] 통증의 기본적인 감각은 시상 thalamus에서 발생한다. 이는 대뇌 변연계 limbic system(감정의 중심부)와 대뇌 피질(cerebral cortex)로 진행해 가는데, 여기에서 통증이 감지되고 해석된다.”¹⁶⁾

한편, 이런 맥락에서 베인의 견해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베인은 통증이 불쾌함의 정서를 본질적으로 동반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지만, 불쾌함을 동반하지 않은 통증 그 자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¹⁷⁾ 그보다는, 베인은 앞서 언급되었던 통각마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불쾌한 통증은 ‘평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복합적 경험임을 보이고자 한다. 베인에 따르면, 통각마비 환자들은 불쾌함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통증이 드러내 보여주는 위협의 상황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통증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와

15) Bellieni(2005), p.5.

16) Paulina Swieboda, Rafal Filip, Andrzej Prystupa, Mariola Drozd, “Assessment of Pain: Types, Mechanism, and Treatment,” *Annals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Special Issue* 1(2013), 2. 또한 보잉크의 다음의 설명도 참조하라: “통증이 처음으로 ‘감지될’(perceived) 수 있는 것은 시상의 단계에서이다. 여기에서 반사운동(reflex movement)과 같은 자율적인 반응들이 촉발된다. 이 지점으로부터 감각의 입력정보는 통증이 ‘경험되는’(experienced) 곳인 대뇌 피질로 전달된다(Prescott, 1964:66). 감지와 경험의 이 구별은 시상의 감지가 [...] 비-의식적인 통증의 자각이며, 대뇌 피질에서의 통증의 경험은 인지된 자각임을 두드러지게 보여 준다”(Boeyink(1974), p.86).

17) 베인은 스스로 평가주의(evaluativism)라고 부르는 자신의 견해가 ‘필연적으로, 모든 통증은 불쾌한 것이다’라는 류의 주장과 모순되지만, 또한 “이 견해는 만약 필요하다면 그러한 직관에 립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David Bain, “Pains That Don’t Hurt”,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92(2014), 309].

중에도 이를 피하도록 동기 부여되지 못한다. 베인은 이러한 평가주의 이론¹⁸⁾이야말로 통각마비 증상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곧, 통증의 불쾌함은 “평가적 내용의 층에 존재하는데, 바로 그로 인해 통증이 손상된 상태를 나쁜 것으로 나타내게 된다. 또한 통증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육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주체에 게만 그 손상된 상태를 나쁜 것으로 드러낼 것이다.”¹⁹⁾ 하지만 베인에 따르면 통각마비 환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상태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이기에 육체의 손상을 ‘나쁜’ 것으로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따라서 통증을 불쾌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기에 이를 회피하도록 동기 부여되지도 않는다.

3. 단순한 통증은 그 자체만으로 신의 완전한 선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단순한 감각으로서의 통증이든 불쾌감을 동반한 복합적인 경험으로서의 통증이든, 통증이 한 인격체의 전인적인 온전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간과할 수 없기에, 통증이 그 자체만으로 신의 완전한 선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단정 지을 결정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통증이 단순한 감각이며 따라서 ‘불쾌하게 느낌’과 같은 감정적인 반응은 통증 자체와는 구별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가정에 따르면, 통증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지 통증의 주체가 자신의 육체적인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위협받고 있음을 감지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이 육체적인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위협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나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훼손이나 위협을 ‘감지

18) “불쾌한 통증 중에 있음은 (i) 자기 자신의 육체의 한 부분이 손상되거나 손상의 위협 하에 있음을 나타내는 — 정확하게든 부정확하게든 — 몸감각(somatosensory)의 경험을 겪는 것과 (ii) 그 경험이 추가적으로 그 손상이나 위협을 나쁜 것으로 드러내는 것에 있다”[Bain(2014), p.306].

19) *Ibid.*, p.315.

하는 것' 자체는 실상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지함이 없이는 육체적 훼손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부주의하게 손을 뻗어 난로를 짚게 되었을 때, 손에 화상을 입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큰 부상의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재빨리 손을 떼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육체적인 위협이나 손상에 직면했을 때, 신이 그런 위협이나 손상에 자신이 노출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는 신의 완전한 선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그러한 위협이나 손상을 '감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에게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전인적인 온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러한 통증을 지남에 대해 — 이에 대해 온전히 이해한다면 — 감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곧, “생리학적인 통증은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고 표시로서 의미심장한 중요성을 지닌다.”²⁰⁾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통증이 신의 완전한 선성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애매하고 오도의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통증이 한 사람의 전체적 온전성을 보존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됨으로써 지니게 되는 긍정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증의 수단적 가치에 착안한다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변신론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 의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그 온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사람들이 통증을 통해 이러한 위협을 감지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감각으로서의 통증을 경고 표시로 허용한다. 이 경우 통증의 존재와 완전히 선한 신의 존재는 서로 모순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위와는 달리, 통증이 전인적 온전성에 대한 위협이나 손상의 감지 뿐 아니라, 그러한 감지에 따르는 감정적인 반응, 곧 불쾌감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가정해보자. 통증을 이렇게 개념한다면, 이는 과연 신의 완전한 선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가? 물

20) Swieboda *et al*(2013), p.2.

론 불쾌감을 동반하는 통증이라면 단순한 감각으로서의 통증보다는 문제가 훨씬 심각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쾌감도 실상은 한 유기체의 전체적 온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단순한 감각으로서의 통증은 한 유기체의 전체적 온전성이 위협받거나 손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경고 표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경우 만약 통증에 불쾌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통증은 사람들이 당면한 육체적 위협이나 손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쾌감과 같은 감정적 반응은 통증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경고 표시로서의 통증의 수단적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²¹⁾ 따라서 신이 통증을 한 유기체의 온전성의 훼손에 대한 경고 표시로서 허용할 때, 단순한 감각으로서의 통증보다는 불쾌감을 동반한 통증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완전한 선성에 더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통증이 경고 표시로서 긍정적인 생물학적 가치를 지남에 덧붙여, 통증이 유발되는 상황 또한 그 주체의 변영이나 전체적 온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이거나 혹은 심지어 불가피한 수단임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군인이 팔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팔을 절단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팔을 절단하는 것은 그 군인의 육체적 온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그에게 끔찍한 통증을 유

21) 물론 지나치게 강한 통증이나 과도하게 지속되는 통증은 가치 있다거나 좋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런 강도나 지속성은 통증의 적절한 경고 기능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지나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급성 질병과 달리 만성 질병은 “통상적인 치유 시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생물학적 목적에도 기여하지 않으며, 분간할 수 있는 종점도 지니고 있지 않다”(Ibid., p.4). 따라서 이렇게 지나치게 강하거나 과도하게 지속되는 통증은 단순한 ‘통증’보다는 ‘고통’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통증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의미에서의 아픔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지나친 통증에 의해 발생하는 공포나 절망, 소외감과 같은 다양한 정신적 상태들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cf. Ibid., p.5).

발할 것이다. 하지만 팔을 절단하는 것이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고려한다면, 그 군인의 육체적 온전성에 대한 이 특정한 손상은 그의 전인적 온전성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일상적인 근력 운동의 경우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역기를 드는 등의 근력 운동을 할 때, 이러한 운동은 근육에 일시적인 손상을 초래하기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근육의 이러한 일시적 손상은 결국에는 근육을 강화하는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 곧 근육이 이런 경미하고 일시적인 손상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차츰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근력 운동을 하는 이는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전 존재적인 차원에서 더 강해지고 건강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이 틀리지 않다면, 근력 운동의 과정에서 겪는 육체적 온전성의 일시적 손상 — 곧 근육의 손상 — 은 실상 그 주체가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통증이 유발되는 상황은 그 주체의 건강과 번영의 측면에서 좋은 수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육체적 경험인 한에서의 통증은 고통과는 달리, 종종 그 주체의 안전과 온전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수단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나곤 한다. 따라서 통증이 고통으로 심화되지 않는 한, 통증이 그 자체로 신의 완전한 선성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통증의 최종적인 가치는 이것이 주체의 전인적인 온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령, 경미한 통증에 근거한 다음의 무신론적 논증을 살펴보기로 하자:²²⁾

- (1) 어떤 세계 W1이 다른 세계 W2보다 통증을 덜 포함하고 있다면,
(그리고 W2가 W1보다 더 나은 점이 없다면) W1은 W2보다 낫다.

22) Morgan Luck, “Incommensurability, Slight Pains and God”,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and Religion* 75(2014), 80.

- (2) 실제 세계 WY보다 통증을 경미하게 덜 포함하고 있으면서 WY가 WX보다 더 나은 점은 없는 그런 가능세계 WX가 존재한다.
- (3)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실제 세계 WY보다 더 좋은 세계는 없다.
- 따라서,
- (4)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유형의 무신론적 논증을 논박해왔지만,²³⁾ 앞서 살펴보았던 고통과 통증의 구별에 근거하여 이 무신론적 논증에 대한 논박을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오용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온전성이 위협받거나 손상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또한, 이 세계에서 신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고 표시로서 통증을 허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W1과 W2는 다른 모든 면에서 동일하되 단지 전자가 후자보다 경미하게 적은 통증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W2에 W1보다 더 나은 경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예를 들어, W1에 더 적은 통증이 포함된 것은, W1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이 통각마비 환자여서 통증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자각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통각마비 환자들은 종종 자신의 육체적 온전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당면한 위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곤 하기에, 전제 (1)과는 달리 W2는

23) 렉에 따르면, 브라운과 나가사와는 전제 (3)을 거부하는데, “어떤 주어진 세계에 대해서든 그보다 더 좋은 세계가 항상 있다는 것을 적어도 생각은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라이프니츠는 전제 (2)를 거부하는데, “어떤 단수의 개별적인 통증의 사건을 실제 세계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더 적은 통증으로 귀결될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Ibid.*, pp.80~81). 렉 자신은 이 문제를 비교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의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어떤 가능세계 WA와 다른 가능세계 WB가 동일한 양의 통증을 포함하되 서로 비교불가능하다면, 그리고 어떤 가능세계 WA+가 다른 모든 면에서는 WA와 동일하되 다만 WA보다 경미하게 적은 통증을 포함하고 있다면, WA+는 WB보다 경미하게 적은 통증을 포함하지만 WB보다 더 나은 세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는 그들이 서로 비교불가능하기 때문이다(*Ibid.*, pp.83~84).

W1보다 더 나은 세계일 것이다. 따라서 통증의 수단적인 가치를 고려한다면, 더 적은 통증을 포함한 세계가 더 많은 통증을 포함한 세계보다 반드시 더 나은 세계라고 판단할 결정적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경미한 통증의 단순한 존재는 그 자체로서는 신의 비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신의 완전한 선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의 완전한 선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고통이다. 통증은 “잠깐 동안 지속되고 일단 사라지고 나면 잊혀져버리는”²⁴⁾ 것임에 반해, 고통은 그 주체의 전반적인 온전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신의 완전한 선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단순한 육체적 경험에 제한되는 통증과는 달리, 고통은 복합적인 정신적, 심리적 경험으로서, “비통함, 두려움, 불길함, 허무함, 덧없음”²⁵⁾과 “후회, 회한, 분노, 절망, 죄책감, 수치심, 곤혹스러움, 슬픔, 거부됨, 참담함, 좌절과 실패”²⁶⁾ 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들은 단순한 육체적 통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러한 상태들이 야기하는 불편함 때문만이 아니라, 실상 이들은 고통의 주체가 자신의 온전성 혹은 “손상되지 않음”(intactness)²⁷⁾의 측면에서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들에 의해 생겨났거나 이러한 위기 상황들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통증의 경우에도, 이것이 단지 일종의 육체적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의 전반적인 온전성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키는 고통으로 심화되면, 이는 또한 앞서 언급한 심리적 상태들을 동반하게 된다.²⁸⁾

24) Ozolins(2003), p.56.

25) Daniel Callahan, *The Troubled Dream of Life: In Search of a Peaceful Death*,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0, p.95.

26) Ozolins(2003), pp.59-60.

27) “고통은 한 사람의 온전함(intactness)을 위협하는 사건들과 연관된 심각한 괴로움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Eric J. Cassell,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Goals of Medicin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06(1982), 640].

28) 다음을 참조하라: “통증을 겪는 사람들은 그들이 통제 불가능이라 느낄 때나 통증이 압도적일 때, 통증의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통증의 의미가 끔찍할 때,

어떤 사람들은 좌절이라는 측면에서 고통의 파괴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실제로 모든 고통은 우리가 욕구하는 것과 [실상]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사이의 균형의 결핍에서 발생한다.”²⁹⁾ 또한 스탠 반후프트는 고통을 “우리 존재의 다양한 측면들의 충족으로 향하는 경향의 좌절”³⁰⁾로 이해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목표와 관련하여 좌절을 겪게 되면, 그는 자신의 삶을 의미 없는 것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³¹⁾ 이런 식으로, 고통은 그 주체의 삶을 의미 없고 파편화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할 때 사람들의 전반적인 온전성은 손상되거나 위협받는다.³²⁾

이렇게 이해되었을 때, 고통은 완전히 선한 신에 대한 믿음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간단히 말해, 신이 전능하고 완전히 선하다면 왜 그는 자신의 피조물들이 이런 파괴적인 경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인가? 고통은 신이 전능하지 않거나 완전히 선하지는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심지어 이는 궁극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는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은 전능하면

혹은 통증이 만성적일 때 종종 통증에서 기인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곤 한다”(Ibid., p.641).

29) Arthur Schopenhauer, *The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v.1(trans. E. F. J. Payne), Dover Publications, 1958, p.88.

30) Stan van Hooft, “Suffering and the Goals of Medicine”,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1(1998), 126. 다른 곳에서 반후프트는 좌절로서의 고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 “고통은 육체의 생물학적 목적들의 충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고, 통증이나 다른 우리의 욕구들과 요구들의 좌절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며, 우리의 실천적인 계획들과 일상의 목표들의 추구를 좌절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Stan van Hooft, “The Meanings of Suffering”, *Hastings Center Report* 28(1998), 15].

31) Callahan(2000), p.95. 이러한 면에서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Richard B. Gundersman, “Is Suffering the Enemy?”, *Hastings Center Report* 32(2002), 42).

32) 전인적인 온전성과 삶의 의미의 관계에 대해, 반후프트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목표들을 향한 열망과 헌신을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 — 육체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 에 불어넣음으로써 우리 존재의 온전성을 성취한다”고 주장한다(van Hooft, “The Meaning of Suffering”, 1998, 18).

서 완전히 선한 신이 고통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신론적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설득력 있는 정당화 없이는 신에 대한 믿음은 위태롭게 될 것이며, 중국에는 비합리적인 어떤 것으로 전락하고 말 수 있다.

4. 요약적 결론

이 논문에서는 우선 고통과 통증을 구별하며, 통증은 주로 육체적 온전성에 대한 위협이나 훼손에 의해 촉발되는 육체적 경험인 반면, 고통은 주로 전인적인 차원의 온전성에 대한 위협이나 훼손에 의해 촉발되는 정신적 혹은 심리적 경험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통증에 대해 보다 자세히 고찰하며, 이것이 단순한 감각, 곧 육체적 온전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단순히 감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혹자는 이를 불쾌감과 같은 감정적 요소를 동반하는 경험으로 해석하기도 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단순한 감각으로서의 통증이든 감정적 요소를 동반한 통증이든, 통증은 고통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전인적인 온전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곤 한다. 곧 육체적 온전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통증 자체는 나쁜 것임에 분명하지만, 통증이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고 표시로 기능하는 경우에서 보듯, 통증은 종종 전인적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지니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능하고 완전히 선한 신의 존재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한 통증과 달리, 고통은 그 고통을 겪는 주체의 삶을 의미 없고 파편화된 것으로 만들며 이를 통해 그 주체의 전인적 온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Bain, David, "Pains That Don't Hurt",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92(2014), 305~320.
- _____, "What Makes Pains Unpleasant?", *Philosophical Studies* 166(2013), 69~89.
- Belliemi, Carlo, "Pain Definitions Revised: Newborns Not Only Feel Pain, They Also Suffer", *Ethics and Medicine* 21(2005), 5~9.
- Berthier, Marcelo, and Sergio Starkstein, Ramon Leiguarda, "Asymbolia for Pain: A Sensory-Limbic Disconnection Syndrome", *Annals of Neurology* 24(2004), 41~49.
- Boeyink, David E., "Pain and Suffering", *Journal of Religious Ethics* 2(1974), 85~98.
- Callahan, Daniel, *The Troubled Dream of Life: In Search of a Peaceful Death*,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0.
- Cassell, Eric, J.,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Goals of Medicin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06(1982), 639~645.
- Eberl, Jason T., "Religious and Secular Perspectives on the Value of Suffering", *The National Catholic Bioethics Quarterly* 12(2012), 251~261.
- Fink, S. Benjamin, "Independence and Connections of Pain and Suffering",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8(2011), 45~66.
- Grahek, Nikola, *Feeling Pain and Being in Pain*, Cambridge: MIT Press, 2007(rev. ed.).
- Gunderman, Richard B., "Is Suffering the Enemy?", *Hastings Center Report* 32 (2002), 40~44.
- Hick, John, *Evil and the God of Lo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rev. ed.)
- Lawless, Harry T., Hildegard Heymann, *Sensory Evaluation of Food: Principles and Practices*, Davis: Springer, 2010(rev. ed.).
- Luck, Morgan, "Incommensurability, slight pains and God",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and Religion* 75(2014), 79~85.
- Mackie, J. L., "Evil and Omnipotence", *Mind* 64(1955), 200~212.
- Ozolins, John, "Suffering: Valuable or Just Useless Pain?", *Sophia* 42(2003), 53~ 77.
- Schopenhauer, Arthur, *The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v.1(trans. E. F. J. Payne), Mineola: Dover Publications, 1966.
- Swieboda, Paulina, and Rafal Filip, Andrzej Prystupa, Mariola Drozd, "Assessment of Pain: Types, Mechanism, and Treatment", *Annals of Agricultural and Environ-*

mental Medicine: Special Issue 1(2013), 2~7.

Tsu, Peter Shiu-Hwa, "Elimination of Pain Versus Elimination of Suffering: Why CDS is Ethically Preferable to PAS",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11 (2011), 45~46.

van Hoof, Stan, "Suffering and the Goals of Medicine",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1(1998), 125~131.

_____, "The Meanings of Suffering", *Hastings Center Report* 28(1998), 13~19.

전능하고 선한 신의 존재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고통과 통증을 구별하며, 통증은 주로 육체적 온전성에 대한 위협이나 훼손에 의해 촉발되는 육체적 경험인 반면, 고통은 주로 전인적인 차원의 온전성에 대한 위협이나 훼손에 의해 촉발되는 심리적 경험인 것으로 제시한다. 또한 통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감각, 곧 육체적 온전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단순히 감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불쾌감과 같은 감정적 요소를 동반하는 경험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단순한 감각으로서의 통증이든 감정적 요소를 동반한 통증이든, 통증은 고통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전인적인 온전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곤 하며, 따라서 신의 선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 곧 육체적 온전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통증 자체는 나쁜 것임에 분명하지만, 통증은 종종 전인적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지니곤 하는 것이다.

▶ 주제어: 고통, 통증, 신의 선성, 전인적 온전성, 통증의 수단적 가치.